기류 저지법을 이용한 발성시의 공기역학적 검사법 제1보, 정상성인 남녀의 검사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문영일 · 김종남 · 정성민 · 박미향* · 이지애 · 민정하

발성기구의 생리학적 연구나 발성장애의 병태를 검사함에 있어서 폐로부터 송출되는 호기의 에너지가 성문에 있어서 어느정도로 목소리의 음원으로 변환되는 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발성시의 호기류율과 함께 성문하에 있어서의 호기압을 측정하여 발성된 목소리의 강도와의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기류 저지법을 이용한 발성시의 공기역학적 검사법은 발성장애에 대한 공기역학적 검사의 한 방법으로, 기류 저지법을 사용한 발성시의 호기압(폐내압)측정을 호기류율, 목소리 강도, 높이의 측정과 조합시키는 방법으로 장치는 기류저지용의 회전 셧터를 발성기능 검사장치의 mouth piece에 접촉시킨 것이다. 기류저지법은 원래는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폐, 기관지의 기류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개발되었다. 이것을 발성시의 공기역학적 검사로 응용한 것이다. 성문에 있어서의 효율은, 생성된 목소리의 power와 성문하의 호기의 power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성문하의 power는 성문하압(평균치)과 호기류율의 적이다. 따라서 효율을 알기 위해서는 소리의 강도, 성문하압, 호기류율을 동시에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교실에서는 상기 검사법을 이용하여 제1보로 정상성인 남녀의 검사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